

개인 30년째 양로원 봉사하는 윤홍자 보살

정성과 부지런함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5월 1일 아침 9시. 누구나 늦잠을 자고 싶은 일요일 오전임에도 윤홍자 보살(63)은 노숙인들의 쉼터 영등포 '보현의집(원장 지계)'으로 어김없이 '출근'한다. 화·목·토·일요일, 이렇게 일주일 중 나흘을 보내는 곳이라 보현의집 주방이 집보다 더 익숙할 정도다.

도착해서 하는 일은 '보현의집' 식구들의 식사 준비다. 특히 고 구 대야에서 윤 보살의 손길을 거쳐 빨갛게 버무려진 열무김치는 '보현의집' 인기 반찬이다.

윤 보살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약 30년 전. 우연히 집 근처에 양로원이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양로원을 보자마자 뭔가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한 번 두 번 음식을 공양하다 보니 봉사의 참 의미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됐고, 이젠 일주일의 대부분을 봉사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열성은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윤 보살은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윤 보살에게 봉사활동은 '생활'이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일상이 된 것이다.

이웃에게 "그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는 힘으로 나가서 돈을 벌면 좋을텐데"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지만 그때마다 웃어넘기곤 한다. 비록 돈은 못 벌었을지라도 30년간 한결같이 이어져 온 봉사가 윤 보살에게는 더 큰 삶의 힘이 된다.

"아유, 봉사활동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있듯이 이긴 그냥 제 삶일 뿐이에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일주일에 나흘, 윤홍자 보살(왼쪽)은 보현의집에서 식사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사진은 5월 1일 봉사 모습.

남 위해 일하다보면 행복해집니다

가족 봉사 기쁨에 빠진 김경옥 보살 가족

어머니 덕분에 봉사하는 즐거움 알게돼 감사해요

4월 26일, 광고항기쁨게부산 모임(본부장 박수관) 사무실로 세 사람이 나란히 들어선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한 나들이며 국을 봉지마다 나눠 들고 나타난 세 사람은 '광고항기쁨게' 최고령 봉사자 김경옥(72·장각성) 보살, 며느리 권미숙(46·묘성행), 딸 강영미(46·법원화)씨다. 김경옥 보살은 몇 개월 전 다리 수술을 받은 뒤 봉사를 잠시 쉬고 후원금만 내고 있던 중 이날 오랜만에 봉사에 동참했다.

"이론 다리 끌고 나왔다고 흥분까봐 딸이 참았어요. 오랜만에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른 아침부터 미역나물, 콩나물, 버섯볶음을 준비한 김보살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이들 가족이 함께 봉사를 하게 시작한 것은 1999년. 98년 법정 스님 강연회를 듣고 난 뒤였다. 특히 9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시동생을 떠나 보낸 강영미 보살은 그때 받은 위로금으로 천마재 활원에 봉사를 하면서 봉사와 첫 인연을 맺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이후 강씨는 봉사를 위해 수직집도 배웠다. 어려운 형편 탓에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병원조차 쉽사리 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 지금은 말반찬 봉사 팀장



딸·며느리와 함께 봉사에 동참한 김경옥 보살(맨 오른쪽).

으로 일주일에 한번,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일을 뒤로 하고 손수 운전용하며 봉사에 임하고 있다.

천주교 신자였던 며느리 권미숙 보살은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금정불교대학, 여여선원 신행학교를 졸업하는 신심깊은 불자가 됐고 시어머니를 따라 봉사도 하게 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 모두가 봉사도 함께 하고 수행도 함께 하는 도반이 된 것이다.

"어머니 덕분에 봉사의 즐거움을 알았으니 너무 감사하죠. 늘 바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어머니를 따르다 보니 종교도 따라가게 됐네요." 며느리는 매주 목요일 옹호복지관 무료급식, 애광양로원 목욕 봉사팀장으로 맹활약 중이다.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음은 물론이다.

"하다보면 봉사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봉사활동에 지꾸 빠져들죠. 또 봉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할 수 있으니 불자로서 이 보다 더 큰 공부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내고 몸이 허락하는 한 봉사현장에서 늘 함께 뛰겠다는 이들 가족의 봉사 정신은 손자 손을 잡고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물림되고 있다.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직장 동국대직원 봉사모임 '둥지회'

아이들 해맑은 웃음에서 나눔의 소중함 깨달아요

"나누고 봉사하는 일이 막연히 좋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해맑은 천진불들을 대할 때마다 봉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업무로 만나는 직장동료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친숙해진 느낌이 들어요."

1997년부터 8년째 매월 한차례 안산 대부도 동지청소년의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교직원들로 구성된 둥지회. 자원봉사라는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201명의 보살들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5월 8일, 윤주영 과장(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등 10여명의 둥지회 회원들은 어김없이 동지청소년의집을 찾았다. 입구까지 뛰어나와 맞아주는 아이들에게서 반가움을 넘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점심공양 준비와 배식, 빨래, 청소조로 흠뻑 땀 흘린 회원들에게 아이들이 따라 붙었다. '주방장'을 맡고 있는 임조경 계장(대학본부 인사관리팀)은 아이들과 즐거운 점심준비로 웃음이 가득하다.

얼마 전, 둥지회는 2800만원을 들여 동지청소년의집에 낡은 재래식 화장실을 대신해 10명 규모의 근사한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 주었다. 그간 모이는 회비와 회원들이 직접 염주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합쳤지만, 모자란 1000만원은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오광진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지원실장은 "직장동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며 "내 가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음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글·사진/안산=박봉영 기자



동국대 둥지회 회원들이 동지청소년의집 어린이들과 새로 지은 해우소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하는 시디 버랄씨

동남아 불자 노동자들에 불교계 관심 필요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시디 버랄(35·네팔). 한국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0년째인 버랄씨는 오늘도 '후배' 노동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 여념이 없다.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한 지 6년째. 재한네팔공동체 회장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버랄씨는 4월 25일에도 벵골 라미자네(28·네팔)씨를 돕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라미자네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운지 10일 만에 회사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두 차례 대수술 끝에 어느 정도 몸을 회복했지만 연수기간이 끝나버려 엄청난 빚을 지게 됐죠. 그래서 법무부에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미자네씨의 상황을 전하는 버랄씨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자신이 그런 상황을 당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와서 용

접일 등 안 해본 일이 없던 그에게도 누구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랄씨는 "대부분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불교신자"라면서 "문화적 통질성이 거 없는 개신교나 가톨릭계가 오히려 적극 돕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나눔'과 같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한국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버랄씨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 언젠가 남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을 모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버랄씨는 6월5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글·사진/부천=유철주 기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조직국장 버랄(오른쪽)씨가 사무실에서 네팔 라미자네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清心淨土 2549 BUDDHA'S BIRTHDAY

卽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의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悔 敬 淨 淨 宗議會議長 鎮 惠 山 明 教育院長 查監院長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총기 34년(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 불교총지중!

불교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만다라의 금강법계궁 총지도량의 진연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宗 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희심
사감원장 법성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불교 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http://www.chongji.or.kr